

# “때 아닐 때 마을에 들어간 것 허물”

##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 (22)

가류타이의 교화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시 때의 일이다. 장로 가류타이가 아라한(阿羅漢)의 도를 얻고서 생각했다. ‘예전에 육군(六群)비구들이 사위국의 모든 집을 욕되게 했다. 내가 다시 청정하게 해야겠다.’

그는 곧 사위국에 들어가 999집을 제도했다. 그 가운데서 남편은 도를 얻었는데 아내가 도를 얻지 못했거나, 아내는 도를 얻었는데 남편이 도를 얻지 못한 집은 그 수에 넣지 않았다. 당시 사위국에 한 바라문의 집이 있었는데, 음당 성문(龔門)으로서 제도되어야 하는 인연이 있었다. 가류타이는 생각했다.

‘내가 다시 이 집을 제도한다면 사위성에서 천 집을 꼭 채울 수 있겠다.’

가류타이는 이른 아침에 발우를 가지고 성에 들어가 걸설하면서 바라문의 집에 이르렀다. 주인은 없고 그의 부인이 문을 잠그고 전을 부치고 있었다. 가류타이가 신력으로 부인앞에 나타나자 부인이 놀라며 생각했다.

‘이 사문이 대체 어디로 들어왔을까? 이는 전이 먹고 싶어 들어온 것이리라. 나는 끝까지 주지 않을 것이다. 아니 눈앞이 튀어나오게 한다 하더라도 절대 주지 않으리라.’

그러자 가류타이는 신력으로 두 눈을 튀어나오게 했다. 그 모습을 본 부인이 다시 생각했다.

‘눈이 튀어나와 주발만 해도 난 절대로 주지 않을 것이다.’

가류타이는 또 신력으로써 금방 눈을 변화시켜 주발만큼 커지게 만들었다. 부인이 다시 생각했다.

‘아니다. 내 앞에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 바라. 내가 주는가?’

가류타이는 이에 신력으로 부인의 앞에 거꾸로 섰다. 부인이 다시 생각했다.

‘아니, 죽어버린다 해도 난 절대로 주지 않을 것이다.’

가류타이는 다시 신력으로 멸수상정(滅受想定)에 들었으니, 마음과 생각이 모두 스러져서 감각이 없어졌다. 바라문 부인은 가류타이를 끌어냈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는지라 너무 놀라고 두려워 생각했다.

‘이 사문은 언제나 바나사낙왕 궁중에 돌아다니던 말리 부인의 스승이다. 만약 내 집에서 죽었다는 소문이 나면 우리들은 이제 낭패를 볼 것이다. 그가 만약 살아나기만 한다면 전 하나를 줄 텐데.’

그러자 가류타이가 문득 선정에서 나와 바라문의 부인을 바라보았다. 놀란 부인은 곧 바구니 위에 부쳐놓은 전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부쳐놓은 것들은 너무 좋아 보여 아까워서 주지 못하고, 바구니 가장자리에 부쳐진 전들을 굶어모아 전 하나를 다시 부쳤다. 그런데 새로 부친 것이 먼저 부쳐놓았던 것보다 더 좋아보였다. 그래서 부인은 전에 부쳐놓았던 것 중에서 하나를 주려고 전을 하나 골라 들었더니 나머지 전들이 줄줄이 붙어 따

라 올라왔다. 가류타이가 말했다.

“부인이여, 나에게 몇 개를 주려 하신 것입니까?”

부인이 네 개의 전을 주려고 하자 가류타이는 받지 않고 말했다.

“나는 이 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대가 보시를 하려고 한다면 정사 안에 계신 스님들께 하십시오.”

부인은 전생에 이미 선근을 심었던 사람인지라 이내 깨닫게 되었다.

‘이 바구시가 사실은 전을 탐낸 것이 아니었구나. 나를 가엾이 여긴 까닭에 와서 먹을 것을 빌었을 뿐이구나.’

부인은 곧 전 바구니를 들고 정사로 가 스님들께 보시했다. 스님들에게 전을 드린 뒤에는 가류타이 앞에 와서 앉았다. 이때 가류타이는 그 인연

때 어느 날, 머느리가 베를 위에서 베를 짜고 있다가 우연히 도둑 두목을 만나게 되었다. 그 두목은 나이도 젊고 잘생겼기에 부인은 그를 유혹하고 불륜을 저질렀다. 그때 가류타이가 그 집에 가서 밥을 먹게 되었다. 가류타이는 바라문의 머느리를 위하여 음식의 허물을 설명하고 파계의 죄를 꾸짖었다. 부인은 가류타이가 일을 알아버렸으니 행여 남편에게 발설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부인은 두려운 마음에 이내 꾀를 내었는데, 병을 핑계 삼아 그에게 머물러 주기를 청했다. 가류타이는 그 집에 머물면서 그를 위하여 설법을 했다. 부인이 간곡하게 잠으로써 오래 머물게 되었는데, 어느 새 해가 저물어버렸다. 그때에 가류타이는 일어나 쓰레기터미 쪽으로 갔는데, 도둑의 두목이 숨어 있다가 날카로운 칼로 그의 머리를 베어 쓰레기터미에 묻어버렸다.



삽화 · 강병호

을 자세히 살피고 그를 위하여 묘법을 말했다. 그러자 부인은 바로 자리에서 티끌과 때를 떨러 여의어 법안의 깨끗함을 얻었고, 삼보에 귀의하여 우바이가 되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남편이 뒤늦게 돌아오자 남편에게 그 사실을 말했다.

“나는 지금 벌써 수다원의 도를 얻었습니다. 당 신도 이제 가셔야겠습니다.”

남편인 바라문도 즉시 나아가자 가류타이는 그를 위하여 묘법을 말했다고, 그도 법안의 깨끗함을 얻고 우바세가 되었다. 그리고 있는 재력을 다하여 가류타이를 공양했다. 자신이 죽을 때가 되자 그의 아들에게 명하여 자신이 있을 때와 다름없이 계속하여 공양하도록 했다. 그의 아들은 명을 받들어 아버지에게 배운 법대로 잘 공양했다. 그런

다음 날 아침에 부처님과 스님들이 사위성에 들어가 쓰레기터미에 이르렀다. 부처님의 신력 때문에 죽은 시체가 공중으로 솟구쳐 나왔다. 비구들은 시신을 모셔 다비를 치르고 탐을 세웠다. 바나사낙왕은 가류타이가 바라문 집에서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내 그 바라문의 집안을 멸문시켰다. 그리고 도둑의 무리들은 모두 붙잡아가다 손발을 끊어버렸다. 비구들이 걸식을 다니다가 이런 소식을 듣고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허물은 때 아닐 적에 마을에 들어갔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십송률》 삼승 제 4권에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행 재구성 구성=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㉔



## 인연은 곳곳에 있어

### 뜻밖의 교화

친구의 남편 배선생이 있다. 친구는 결혼하기 전부터 친구이지만 그의 남편은 결혼 후에 알게 된 사람이다. 큰 몸집에 거친 말투로 국회에 근무한 사람이었다. 그는 친구의 남편이지만 내가 절에 다니는 것을 못마땅하고 나를 곱게 대하지 않았다. 친구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는데, 어느 날 부산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다. 서울의 집을 정리하는 동안 친구는 아이들과 서울에 있어야 했고, 배 선생은 우리 집에서 잠깐 지내게 되었다. 그는 말이 매우 거친 사람이었다. 걸핏하면 내가 절에 다니는 것을 못마땅하며 시비를 걸었으며, 부처님이나 스님에 대해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그래서 친구의 남편이었지만 우리는 매우 사이가 좋지 않았다. 내가 심하게 화낼 때면 남편은 “몰라서 하는 말이니 의연하게 받아 넘기라.”며 나를 달래기도 했다. 답답하고 화가 난 나는 애초는 남편한테 화풀이를 하고 했다. 며칠 후 친구는 아이들과 함께 부산으로 내려왔다. 나와 한 동네에 집을 얻었다. 친구와는 한 이웃이 되었다. 멀리 서울에 살던 친구가 이웃이 되어 반가웠지만 친구의 남편과는 여전히 종교문제도 종종 다투었다.

### 초파일

오늘은 불기 2557년 4월 초파일이다. 예전 같았으면 이 날마다 버스 한 대, 또 두 대로 나눠 타고 부부동반 연등달기로 해인사에 갔었을 것이다.

부처님 생신날이라고 미역국에 하얀 쌀밥 그리고 김치를 준비하여 현풍 휴게소에서 내려 뜨끈한 국에 밥을 말아 김치 한 조각 얹어주면 재가기 언덕 툇 밭 자리에 앉아 맛있는 먹곤 했다. 가는 내내 내가 선창하고 도반들은 함께 기도를 하면서 마냥 행복해 했었다. 그때가 많이 그림자다.

오늘 나는 우리 모임이 있는 소림연화선원에 갔다. 일찍부터 몰려드는 신도님들을 맞이하고 등 접수도 도우면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오후엔 남편과 흥법사에 갔다.

마침 동자승 열 분이 발우공양 시연을 하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동자승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귀엽고 고맙게 생각되어 모두가 잘 자라 참된 불자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원했다.

또 멀리 있는 우리 가족 모두의 서원 등도 달았다. 다시 범어사로 갔는데 주차 할 곳이 없어 하는 수 없이 내려오다 무명사를 지나게 되어 참배하고 가기로 했다. 입구에서 무명 스님을 만났다. 8층 짜리 건물은 잘 꾸며진 포교와 기도 도량으로 손색이 없는 절이었다.

금정산 자락을 배경으로 지어진 절이어서 뒷산의 상록만으로도 신심이 절로 난다고 이 절 신도들은 자랑을 했다.

가끔 신심으로 가득한 젊은 불자들이 보면 나의 젊은 시절이 생각난다. 그 날도 무명사의 젊은 신도들을 보면서 열심히 수행하던 시절이 떠올랐다.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그래서 좋은 일인 것 같다. 세월이 지나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좋은 것 같다.

충증이 모셔진 부처님께 예를 다해 절을 한 후 안내에 따라 스님 방으로 들어갔을 때 주지 스님이 신도들에게 초파일을 맞아 덕담으로 법문을 하고 계셨다. 스님은 지금의 도량을 일구기까지 힘겹게 살아온 지난날을 말씀하셨다.

기도의 원력과 한결같은 신심의 결과가 이렇게 거룩한 역사를 일구어 냈다. 지금의 절 뒷산, 금정산 중턱에 작은 비닐법당 한 평으로 시작한 불사였다고 한다. 신도님들의 정성으로 이 불사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신다.

오늘 세 번째 스님을 뵈었다. 처음엔 이 절 불교 대학 개설 때 내내 참석해서 뵈었고, 두 번째는 도반의 집 천도제에 참석했을 때 뵈었다. 온 몸 가득히 기쁨을 입으신 스님의 모습은 신도들이 충분히 믿음과 공유함이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스님의 원력과 신심의 법문으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우리 5명은 자정이 가까워져야 집으로 돌아왔다. 부처님이 초파일에 주신 특별한 선물이었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 지인 귀의에 '불성' 다시 새겨 돌아볼 것 있을 때 보람 느껴

그런데 해인사 일타 스님을 만난 이후부터 배 선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거칠었던 그의 말투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느 때부터 내가 집에서 백팔배하는 것을 보고는 그도 매일 백팔배를 하기 시작했다. 그해 여름 범어사 행사에 참석하신 일타 스님 지관 스님 법정 스님 해인 스님 네 분의 스님이 점심 공양을 우리 집에서 하게 되었다. 이웃 도반들도 함께 와 있었다. 스님들과 담소를 나누다 거칠기만 하던 배 선생님이 이젠 매일 백팔배를 한다고 자랑했다.

그 후 남편과 함께 구도회에 나가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하더니 매일 사경도 하며 불교교리도 배우며 불자로 변해갔다. 그 뒤에 배 선생은 나를 만날 때마다 “이 공덕은 대원성의 것이고, 항상 감사한다.”고 했다. 몇 년 전 법복이 한 벌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너무나 고마운 마음에 내가 한 벌 선물을 했다.

그런데 어느 때 보니 배 선생이 백팔배를 하는데 낡은 바지를 입고 절을 하고 있었다. 내가 선물한 법복은 여저고 헌 옷을 입고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 옷은 좋은날 행사 때만 입는다고 했다. 이제는 독실한 불자가 된 배 선생을 보면 가끔 8년 전의 배 선생이 생각난다. 배 선생을 보면 부처님이 이미 우리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신 말씀이 가슴에 와 닿는다.

**불성의 광명과 무한능력 일깨우는 천수다라니 수행지침서**

**불교TV '대비주수행' 방송강의 중**

일산 법상스님의 대비주 수행 예화편 **내 생애 단 한번 뿐인, 오늘**

일산법상 지음  
46판 | 윗갈라 | 200쪽 | 10,0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대비주를 수행하면 참나가 모습을 드러낸다”**

대비주 전문 수행도량 일산 덕양선원장 법상스님이 다양한 연령층의 신도들에게 대비주를 가르치고 상담하면서 실제 경험한 수행일화를 기록하고, 이를 불교적으로 해설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책. ‘광명의 깃발이자 신봉의 보물창고 [受持身是光明幢 受持心是神通藏]’로 불리우는 대비주를 통한 집중수행이 참된 행복을 불러오도록 일깨운다.

덕양선원 <http://cafe.daum.net/zeol> (031)907-7172  
비움과소통 [www.facebook.com/BlumSotong](http://www.facebook.com/BlumSotong) (02)2632-8739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5년전통  
초상의 열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b>9원 구분</b>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b>2원 구분</b>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 (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http://www.msjy.co.kr)

**초절전형 슈퍼에너지 전기 보일러**  
전국 사찰 300여곳 시공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대환영**

**태양광 발전사업 최고의 안정성 · 수익성**

노후에 “연금이 따로 있나? 태양광이 연금이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사업은 개인에게 사업권을 부여하여 안정적 소득 창출과 향후 노후대책은 물론 지속적으로 수입을 12년 동안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 50Kw 발전 기준시 년소득 약 3,000만원 (불자우대)

내일처럼 열심히 하겠습니까 **慧峰 합장**

**직통 011-335-6389, 대표전화 1688-5687**